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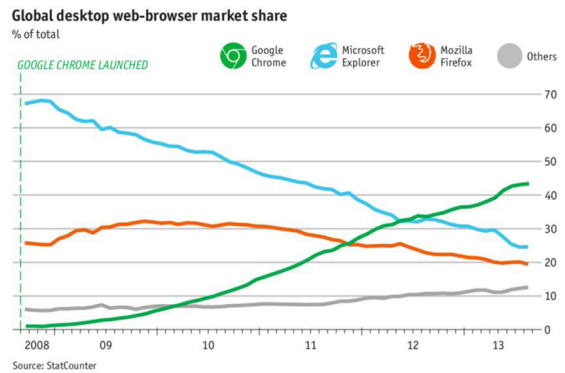
모질라(Mozilla), 모바일 기기를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운영체제 개발 및 확산에 노력¹⁾

글 : 이상엽 (sylee1@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질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모질라의 Firefox 웹 브라우저는 독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모질라의 Firefox 웹 브라우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Firefox가 오픈 소스 기반의 브라우저이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Firefox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머들의 그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용자를 매혹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Tablet PC 등)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모질라의 이러한 openness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Firefox의 시장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모바일 시장은 구글과 애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전 세계 모바일 기기의 96%가 애플의 iOS 또는 구

그림 1: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추이



글의 Android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모두 폐쇄적이며 통제적인 성향을 띤다. 즉, iOS나 Android 운영체제에서 운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플과 구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Android와 i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개발자들은 더이상 open-source 기반의 제품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애플과 구글의 digital store에서 잘 팔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를 고민한다. 현재로서는 애플과 구글

1) 자료: George Anders(2015. 5. 22), "Firefox Maker Battles to Save the Internet—and Itself", MIT Technology Review

의 대항하는 마땅한 경쟁업체가 없어 보인다. 한 때 경쟁업체였던 BlackBerry와 MS의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율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모질라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도 open source 기반의 운영체제를 들고 말이다. 이를 위해 모질라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Firefox OS'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Firefox OS는 기존의 Firefox 웹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openness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모질라는 2011년 부터 Firefox OS 운영체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Firefox OS는 개발자들이 애플과 구글의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질라의 이러한 싸움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구글과 애플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질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도 구글과 애플에 비해 부족하다.

초창기에 모질라는 Firefox OS를 위한 시장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구글의 Android나 애플의 iOS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가형 스마트폰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모질라는 구글의 Android와 애플의 iOS는 너무 복잡해서 \$120 이하의 제품에서는 운용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100 미만의 제품을 생산한다

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났다. 구글이 기존의 Android를 변형하여 저가형 스마트폰에서도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Firefox OS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도 안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시장에서의 모질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의 주요 통신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Telefonica, ZTE, Alcatel One 등과 제휴를 맺었으며, 칩 제조업체인 켈컴도 Firefox OS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LG 전자도 모질라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모질라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구글과 애플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모질라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모질라가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성공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모질라는 미국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즌(Verizon)과의 계약을 통해 Firefox OS 기반의 스마트폰을 내년엔 미국에 출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모질라가 모바일 시장에서 그 입지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엔 버라이즌을 통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전망한다.